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이재형 동지를 보내며

서 정 복
(이사)

그리운 친구 이재형!
자랑스러운 동지 이재형!

여기 싸늘한 빈터에 그대가 그토록 아끼던 선후배 동지들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이렇듯 애타게 불러보건만
그대는 대답이 없구려.

돌이켜보건대, 그대와 나 우리 4월혁명 세대는
일제 지배하에 신음하던 식민지 조국에 태어나
민족 해방, 민중 해방의 숙명을 지게 되었소.

우리는 일제 패망 후의 해방공간과 6.25전쟁을 전후하여
우리 앞 세대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죽어 가는가를 보며 소년시기를 보냈소.

1960년 4월혁명은
우리 스스로 반공 독재의 사슬을 끊고,
반외세 민족자주통일의 광장에 어깨동무로 나아가게 하였소.

그러나 나라 안팎의 반민족 반민중 세력의 반동으로
다시금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걷게 되었소.

그 오랜 세월의 투옥과 고난 속에서도
동지는 타협을 거부하는 지사의 깨끗한 품모를 지켜왔소.

그러나 어이할꼬!
그로 하여 상처 입은 육신에 숨어든 병마가
그대를 쓰러뜨릴 줄이야?
불과 20여 일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 가자고 굳게 맞잡던 손,
그 손의 온기와 의연한 미소가 아직 이렇게 뚜렷하건만.

이재형 동지!
이제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일랑
우리에게 넘기고 좀 편히 쉬시구려.
생전에 못 누리던 평안을 저승에서나마 찾기 바라오.

잘 가시오!
그리운 사람 이재형,
자랑스러운 동지 이재형!

2004. 12. 24
못난 친구 서정복

사월혁명회보 제75호(2005.1)